

텍스트 속에 나타난 분열된 사회

- 체계 기능 언어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

유혜원*

|| 차례 ||

- I. 서론
- II. 비판적 담화 분석과 체계 기능 언어학적 연구
- III. 체계 기능 언어학적 분석의 실제
- IV. 결론 : 텍스트에 나타난 분열의 속성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조국 백서’라 불리는 <검찰 개혁과 촛불 시민(2020)>과 ‘조국 흑서’라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2020)>를 대상으로 텍스트 속에 드러난 분열 양상을 체계 기능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르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 중에서 ‘언론’을 다루는 부분을 발췌하여 계량적 양상과 질적 양상을 살펴 텍스트에 나타난 분열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계량적 분석과 타동성 및 어휘 양상 분석을 통해 <검찰 개혁과 촛불 시민(2020)>의 장르적 특성인 백서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2020)>에서는 팩트와 논리에 기반하고자 했던 저자들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검찰 개혁과 촛불 시민(2020)>에서는 ‘언론’의 문제를 언론 그 자체로 보는 반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2020)>에서는 ‘언론’이 조작되고 만들어지는 객체라는 인식 등을 확인할 수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교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두 텍스트에 나타난 분열적 양상을 저자, 독자, 내용적 측면에서 제시하였으며, 두 텍스트에 나타난 감정적 어휘의 빈번한 사용, 경멸어의 과도한 사용 등이 우리 사회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주제어 : 경멸어, 분열, 조국 백서, 조국 흑서, 체계 기능 언어학, 타동성 분석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 사회 갈등의 중심에 있는 문제를 다루는 2종의 텍스트를 선정하여, 텍스트 속에 드러난 분열 양상을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 선정한 두 개의 텍스트는 일명 ‘조국 백서’라 불리는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2020)>과 이에 대응하여 이후에 출판된 ‘조국 흑서’라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2020)>이다. 2020년 이후 대한민국은 조국을 기준으로 극심한 분열을 겪어 왔으며, 이러한 분열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언어학자의 입장에서 언론이나 SNS에서 쏟아지는 이와 관련된 담화나 텍스트를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심화시킨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담화나 텍스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느 진영 논리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대신 객관적인 언어 분석 방법론을 기반으로 텍스트를 분석해 보고, 각 텍스트가 함의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고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기반은 음운론, 문법론, 의미론으로 대별되는 미시 언

어학의 방법론이 아니라 거시 언어학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거시 언어학의 한 분야인 담화 분석(discourse analysis)은 문장 단위의 문법 연구에서 벗어나 두 개 이상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의미의 기본 단위인 담화 혹은 텍스트를 선정하고 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이다.¹⁾ 이 중 비평적 담화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은 언어학과 사회과학이 하나의 학제적 학문으로 융합된 것으로 연구와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을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이나 사회제도의 개선책을 모색하는데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김진우(2017:425)) 김진우(2017:426)에서 제시되었듯이 이러한 텍스트 분석의 방법 중 중요한 연구 방법은 담화간 텍스트 분석법이다. Fairclough(2005)의 논의에 따르면 이 분석법은 ‘서로 다른 담화와 장르, 문체들이 하나의 특수한 표현체, 즉 텍스트로 드러나 있는 것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방법론은 두 개의 상반된 관점의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론이라 볼 수 있다. 즉 한국 사회의 분열상을 분석하기 위해 동일한 현상이나 사건 혹은 이슈를 다루는 두 개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두 텍스트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중요한 키워드를 선정하고 그 키워드가 각각의 텍스트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이들의 속성이 어떻게 서술되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언어 분석을 위해 비판적 담화 분석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체계 기

1) 연구자에 따라서는 담화와 텍스트를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담화는 주로 구어 자료를 지칭하는 데 쓰고, 텍스트는 문어 자료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김진우(2017:8~10)에서 제시된 것처럼 ‘담화’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사전을 비롯한 많은 연구서에서는 담화를 ‘언어학: 발화의 한 연결된 연속체: 하나의 텍스트 또는 회화’라고 규정함으로써, 담화 속에 구어와 문어가 포괄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담화를 구어와 문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능 언어학적 연구 방법론을 채택할 것인데, 2장에서는 연구의 기반이 되는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3장에서는 해당 텍스트를 계량적 질적으로 분석하여 각 텍스트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분열 양상이 무엇인지 구체화할 것이다.

II. 비판적 담화 분석과 체계 기능 언어학적 연구

미시 언어학이 언어 그 자체를 탐구하는 것이라면 거시 언어학의 한 갈래인 비판적 담화 분석은 기본적으로 문제 지향적이며 학제적인 접근 방법이다. Ruth Wodak & Michael Meyer(2016:20~21)에서는 비판적 담화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은 언어학적 단위를 그 자체로 탐구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며, 필연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현상들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다학제적이고 다방법론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비판적 담화 연구를 규정하는 특성은 권력을 사회적 삶의 핵심 조건으로 보고 이러한 현상을 언어 이론의 주요 전제로 통합하여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언어는 사회적 권력과 여러 방식으로 얽혀 있을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2) Ruth Wodak & Michael Meyer(2016:39)에서는 언어가 사회적 권력과 얽히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언어는 권력을 표시하고 또 표현하기도 한다. 언어는 권력에 대한 논쟁 및 문제제기와 관련된다. 권력이 반드시 언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는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권력에 도전하고 권력을 전복하고 권력의 분배를 바꾸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언어는 위계적 사회 구조에서 권력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섬세하게 표현되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비

이러한 특성 때문에 비판적 담화 분석의 연구 대상은 주로 정치 담화나 인종주의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³⁾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 사회학과 정치학 분야에서 언어 분석을 통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다. 갈등 프레임 연구를 위해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가 대표적인데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해당 주민의 갈등 프레임을 연구한 심준섭(2011), 일베사이트 극우주의를 연구한 석승혜·장안식(2017) 등이 대표적이다. 언어학 연구에서도 ‘시계열 공기어(cooccurrence word) 네트워크 분석’ 방법으로 외국어가 한국어에 유입되어 정착되는 과정을 연구한 김일환(2020) 등이 있다. 이러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좁은 범위의 대상이나 현상의 비교 분석 및 특징 추출 등에 적합한 연구 방법으로 텍스트 내에서 사회의 분열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본 연구 방법론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비판적 담화 분석의 연구도 정치 담화나 광고 담화, 미디어 담화에 집중되어 이루어져 왔다. 최윤선(2014)의 프랑스 광고 커뮤니케이션, 200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TV 토론 담화,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토론 담화 분석 연구와 서경희·김규현(2019)의 동

판적 담화 연구는 사회의 권력과 이데올로기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3) Fairclough(2003:27~29)에서는 비판적 담화 분석에서 다룰 수 있는 사회 조사 연구 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신자본주의 사회의 정부 또는 경영방식, 일부 사회학 이론들에서 ‘현대-후기 성격(postmodernity)’으로 부르는 내용의 특징으로서 사회 경계들의 혼종 성격(hybridity) 또는 흐릿함, 세계화(globalization)와 연합된 시공(space-time)에서의 전환, 특정한 담화 및 표상들에 대하여 보편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패권(hegemonic) 다툼, 이데올로기, 시민권 및 공공의 공간(public space), 사회 변화 및 의사소통 기술에서의 변화, 사회 행위 및 사회 질서들에 대한 합법화(legitimation), (경영자 및 치료전문가를 포함하여) 현대사회의 지배적 특징 유형들, 사회구조적 비격식화 및 명백한 계층들로부터 벗어나는 전환”이 그것이다.

남아 이주민 기사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담화 분석의 예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체계 기능 언어학의 방법론으로 비판적 담화 분석을 한 연구가 다수 나왔는데 공익광고를 분석한 이승연(2016),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한일 외교 당국 웹사이트를 비교 분석한 박지영(2017), 한겨레 사설과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 비교 분석한 이관규(2018)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체계 기능 언어학적 방법론으로 서법(mood), 양태(modality), 타동성(transitivity), 테마 분석(them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Halliday(1994)에 의해 주창된 체계 기능 언어학은 두 가지 전제에서 출발한다. Eggins(2004:30~31)에 따르면 체계 기능 언어학의 첫 번째 기본 전제는 언어 사용은 의도적 행위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러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장만으로 불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립된 문장 이상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 기능 언어학의 전제 하에 체계 기능 언어학의 목표는 언어적 표현의 분석을 통해 텍스트가 함의하는 의미 및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 나아가 이를 평가하는 데 있다.

체계 기능 언어학에서는 텍스트가 세 가지 종류의 의미를 동시에 만들어낸다고 체계화한다. 관념적 의미(ideational meaning)와 대인 관계적 의미(interpersonal meaning), 텍스트적 의미(textual meaning)가 그것이다. 관념적 의미는 언어로 경험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어휘 문법의 분석, 타동성과 질 복합체 패턴 등을 통해 실현된다. 대인 관계적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의 역할 관계에 대한 의미와 서로에 대한 태도에 관한 의미로 문법의 서법 패턴(Mood pattern) 등을 통해 실현된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적 의미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주변의 맥락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

는지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 테마 패턴을 통해 실현된다.⁴⁾ 체계 기능 언어학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장르와 사용역의 분석을 토대로 세 가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세부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여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사회의 분열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대립되는 텍스트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체계 기능 언어학적 분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텍스트의 사용역적 장르적 특성을 살펴보고, 텍스트에서 주체로 기술되는 주어와 그에 상응하는 서술어를 중심으로 타동성 분석을 하는 한편, 주요 성분으로 쓰인 명사류와 동사류의 어휘적 특성을 분석하여 텍스트의 분열적 속성을 드러낼 것이다.

III. 체계 기능 언어학적 분석의 실제

1. 텍스트의 특징에 대한 거시적 분석

체계 기능 언어학에서는 의미적 단위로 텍스트를 상정하고 텍스트가 발생하는 사회 문화적 맥락인 일관성과 텍스트 안에서 요소들이 통합된 전체로 함께 묶이는 응집성을 통해 조화(texture)를 이루어야만 텍스트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중 맥락적 일관성의 첫 번째 차원은 장르 분석인데, 장르는 텍스트의 ‘문화적 목적’이 될 수 있다.⁵⁾

4) 체계 기능 언어학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Eggins(2004)에서 참조한 것임을 밝힌다.

5) 체계 기능 언어학에서 장르에 대한 개념도 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다. 이관규 외(2021 : 251~252)에서는 장르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텍스트 분류의 결과가 되기도 하고, 역동적인 사회적 행위가 되기도 한다면서 Halliday의 장르는 전통적인 용어로서 사용역 또는 맥락 변이인 ‘양식(mode)’의 한 측면을 의미했다면

Martin(1984)에 따르면 장르는 ‘문화의 구성원으로서 화자들이 참여하는 단계화되고 목표 지향적이고 목적 의식이 있는 활동(Martin(1984: 25))’이고, ‘언어를 사용하여 어떤 일을 성취하는 방법(Martin(1984: 248))’을 의미한다. 장르에는 단편, 자서전, 시 등을 포함한 문학 장르, 대중적인 픽션 장르, 논픽션 장르, 교육 장르 등이 있으며, 거래 장르, 정보 찾고 공급하기, 이야기하기, 수다, 의견 교환 등과 같은 일상 장르가 있다. Eggins(2004: 150)에서는 체계 언어학에서 장르의 정체성(indentity)을 확인하기 위해 3가지 차원을 분석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첫 번째는 특별한 맥락적 무리의 공기(co-occurrence)를 지칭하는 사용역 형상(register configuration)이고, 두 번째는 텍스트의 단계화된 도식 구조(schematic structure)이며, 마지막으로 언어적 실현 패턴(realizational patterns)이다.⁶⁾

상황 맥락은 장르와 연관된 문화적 맥락과는 구별되는 제2의 상황 맥락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 맥락 즉 사용역(register)이 특정 장르 사용의 적절성에 제약을 가한다. 즉 텍스트 산출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이고 텍스트가 무엇에 관한 것이며, 사건에서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같은 차원에서 텍스트를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게 하는 ‘세부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사용역이다. Eggins(2004:233~234)에서는 맥락의 세 가지 차원 즉 필드(field), 모드(mode), 테너(tenor)를 사용역 변인이라 제시하면서 이 세 가지 변인에 의해 텍스트의 맥락적 차

Martin은 역동적 사회적 행위로서의 장르를 규정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 6) 하나의 장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특정한 맥락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반복적인 방법이 만들어지고(사용역 형상) 이러한 방법들은 단계적이고 구조화된 언어적 사건으로 구조화되며(도식 구조), 구조화된 각 단계에 사용되는 언어적 실현 양상은 각기 구별된 양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원인 사용역이 분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⁷⁾

본 연구를 위해 채택한 두 가지 텍스트는 장르와 사용역이 매우 다르다. 첫 번째 텍스트인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2020)>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 ‘백서’라는 장르에 해당하는 전형적 문어 텍스트이다. ‘백서’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백서: 정부가 정치, 외교, 경제 따위의 각 분야에 대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만든 보고서

위의 정의를 통해 추출한 백서의 장르적 특징은 ‘공식성, 대표성, 보고서’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정부가 공식적으로 만든 보고서’로서의 특징은 이것이 해당 문제에 대한 대표성과 공식성을 띠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보고서라는 장르적 명칭을 통해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추이를 객관적으로 알려려는 의도를 가진 장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2020)>의 서문에서 “과연 ‘검찰개혁’ 프레임과 ‘조국 가족 비리 의혹’ 프레임 중 어느 것이 2019년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일까?(7쪽)”라는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이 백서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검찰, 정치권, 기성 언론과 1인 미디어, 그리고 두 개의 광장으로 양분되어 혼란스러웠던 이른바 ‘조국 대전’에 참여한 주요 주체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백서는 어디까지나 백서이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자료 제공’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다.(7쪽)”라고 밝히고 있다. 백서의 장

7) Eggins(2004:233)에서 제시된 필드, 모드, 테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필드(field): 무엇에 대해 말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
- 모드(mode): 상호작용에서 언어가 하는 역할
- 테너(tenor): 상호작용 참여자들 사이의 역할 관계

르적 성격과 서문에서의 책 서술의 의도를 종합하여 분석한 사용역 변인은 다음과 같다.

(2)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의 사용역 특징

- ㄱ. 필드(field): 조국 대전에 참여한 주요 주체들에 대한 평가 및 비판 : 검찰, 정치권, 기성 언론과 1인 미디어
- ㄴ. 모드(mode): 전형적 문어 모드(격식적 문어)
- ㄷ. 테너(tenor): 전문가가 일반 대중에게⁸⁾

이러한 장르와 사용역의 특성을 통해 ‘권력’의 관점에서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의 저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거나 권력의 편에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즉 자신들의 책이 정부가 발행하는 보고서인 ‘백서’임을 밝히며, 자신들이 현재 권력의 대표임을 책의 장르와 서문 등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2020)>는 출판사의 기획으로 5명의 저자가 모여 진행한 대담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책의 서문에서 밝힌 집필 의도는 다음과 같다. “정권을 비판하려면 이전보다 훨씬 더

8) 이 책의 저자는 ‘조국백서추진위원회’ 소속의 사람들이다. 저자의 소개에서 밝히고 있듯 “조국백서는 2019년 8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촉발되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검찰과 언론의 행태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에서 시작되었다.”고 쓰고 있다. 아울러 “이른바 조국 사태 과정에서 검찰개혁 의제는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부정부패 논란으로 왜곡되었으며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조국백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은 이러한 혼란과 갈등 속에서 SNS와 촛불집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던 시민들이 함께 만든 결실이다. 이 백서가 우리 공동체의 ‘기억의 공유’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자료 및 기록으로써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쓰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들은 이 책의 내용이 촛불 시민의 요구이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록이라고 쓰고 있어서, ‘백서’라는 장르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큰 용기가 필요한 이때, 우리 다섯 명이 모였습니다. <중략> 지난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던 우리는 이제 이 책을 시작으로 현 정부와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 싸움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렉터 군단과 싸웠던 독수리 오형제는 지구 모든 이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우리 다섯 명은 입법·행정을 장악하고 사법권마저 가지려는 초강력 정권과 싸워야 하는데다, 지구인을 가장한 수많은 문팬들의 음해와도 싸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저들이 선전과 선동, 날조로 싸움을 거는 반면, 우리는 오직 팩트와 논리로만 승부하니까요.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조국 사태를 비롯한 현 정권의 치부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진리를 깨우친 ‘우리’의 숫자가 더 많아진다면, 우리가 바라던 정의로운 세상을 앞당길 수 있을 테니까요.”라고 밝히고 있다. 즉 이 책의 서술 목적은 ‘현 정부와의 싸움의 시작’이자 ‘선전과 선동 날조’와 대항하여 ‘팩트와 논리’로 싸움을 하면서 독자들 중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라 정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사용역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3)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2020)>

- ㄱ. 필드(field): 정권 비판
- ㄴ. 모드(mode): 쓰여진 대담
- ㄷ. 테너(tenor): 전문가가 일반 대중에게

이 책의 필드는 정권 비판인데, 세부적인 목차를 통해 ‘민주주의, 미디어, 지식인, 팬덤 정치, 사모펀드, 정치. 정의와 공정’과 같은 키워드가 책의 중심 필드임을 알 수 있다. 모드는 독자와의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방송의 대담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

고 텍스트를 이루는 언어적 형식은 격식적 구어 모드이고, 실시간 발화가 아니라 문자언어로 기록된 문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이 이처럼 대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정권 비판’을 위한 효율적 장르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우선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임을 보여줄 수 있고, 격식적 문어보다 좀 더 자유로운 형식으로 신랄한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장르적 성격은 백서와 달리 ‘권력’의 관점에서 저자들이 ‘현재 권력’의 대척점에 있음을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두 책의 공통점은 테너 영역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책을 집필하고 자신의 책이 일반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두 텍스트에서 나타난 독자에 대한 저자들의 인식은 다르다.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은 이 책이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작성되었고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그동안의 상황을 기록한 텍스트라고 밝히고 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는 자신들의 책을 통해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우리’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책의 저자들이 상정하고 있는 독자를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대중을 주 독자층으로 삼고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텍스트의 성격 때문에 전자에 비해 후자의 텍스트에서 좀 더 적극적인 설득을 위한 언어적 표현이나 내용이 많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두 텍스트의 사용역 변인 중 비교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필드(field)이다. 텍스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공통된 주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본고에서 선택한 주제는 ‘언론’이다.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의 제3부의 타이틀은 ‘언론:조국 사태와 언론’이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2장의 타이틀은 ‘미디어의 몰락, 지식인의 죽음’이다.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에서는 제3부 중 1장에 해당하는 ‘조국 가족 관련 언론 보도’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2장은 모두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언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각 텍스트에서 동일한 필드가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언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할 것이다.

두 텍스트에 나타난 언어의 실증적 비교 분석을 위해 해당 텍스트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형태소 분석(지능형 형태소 분석기)을 한 다음, Antconc를 이용하여 빈도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엑셀 형태로 가공하여 두 텍스트에 나타난 어휘들의 계량적 양상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체계 기능 문법의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각 텍스트에 나타난 분열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2. 계량적 분석의 특징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언론과 관련하여 선택한 텍스트의 분량은 다음과 같다.

- (4) ㄱ.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2020)>(이후 ‘백서’로 지칭)
 - 총 13,861어절(58,734음절)
 - Type: 3337, Token: 31,926, Token/Type: 9.6
- 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2020)>(이후 ‘흑서’로 지칭)
 - 총 7,695어절(32,542음절)
 - Type: 2685, Token: 17553, Token/Type: 6.5⁹⁾

9) 백서가 흑서의 분량보다 약 두 배 정도가 많지만 동일한 필드(field)의 내용을 비교

두 텍스트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토큰을 타입으로 나눈 값이 (4ㄱ)은 9.6, (4ㄴ)은 6.5로 (4ㄱ)의 값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4ㄱ)의 텍스트에서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⁰⁾

체계 기능 언어학적 분석에서 텍스트의 관념적 의미(ideational meaning)를 분석하기 위해 타동성 분석(transitivity analysis)의 주요 분석 대상인 주어(Subject), 서술어(Predicator), 보충어(Complement), 부가어(Adjunct)를 이루는 성분인 명사류와 용언류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명사류의 상위 빈도를 통해 이 텍스트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다.

(5) 명사류의 고빈도 어휘

ㄱ. 백서: 보도, 교수, 조국, 기사, 언론, 장학금, 논문, 총장, 후보자,

하기 위해서 분량의 조절은 하지 않았다. 다만 (4ㄱ)의 경우 백서의 성격상 관련 신문기사의 타이틀 등이 나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포함하지 않았다. 책 내용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자료일 수 있으나 언어 표현을 통해 필자들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서 볼 때 기사 타이틀이 이를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제외한 것이다.

- 10) 이러한 타입 토큰 비율의 차이는 장르의 상이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4ㄱ)은 전형적 문어이고 (4ㄴ)은 구어를 문자로 기록한 텍스트이다. 실제로 (4ㄱ)에서 문종결 표지인 마침표가 빈도 순위 3위로 759회 나타난 반면, (4ㄴ)은 마침표가 1위로 678회 나타난다. (4ㄱ)의 텍스트 분량이 약 두 배 정도라고 본다면 (4ㄱ)의 문장 평균 길이가 (4ㄴ)의 문장 평균 길이보다 길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4ㄱ)에서는 종결어미 '다'가 912회로 빈도 순위 2위인 반면, (4ㄴ)에서는 42회로 빈도 순위 68위이다. 대신 '-입니다, -어요, -습니다, -예요, -잖아요'가 '-다'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어와 구어의 성격을 반영하는 또 다른 특징은 물음표의 빈도이다. (4ㄱ)에서는 물음표(?)가 18회 나타나 빈도 순위 233위에 해당하지만, (4ㄴ)에서는 44회 나타나 빈도 순위 66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체 빈도의 양상은 두 텍스트의 장르적 차이를 반영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딸, 씨, 의혹, 검찰, 사실, 표창장, 동양, 장관, 문제, 내용, 인턴, 관련, 단독, 저자, 확인, 해명, 공주, 제기, 의원, 정, 다른, 말, 서울대, 학생, 과정, 직인, 청문회, 당시, 논란, 때문, 뉴스, 중앙일보, 제출, 조선일보, 주장, 활동, 위장, 위조, 일, 입학, 정경심, 학교, 동아일보, 의진원, 압수, 윤총경, 인사, 파일, sbs, 수색, 입시, 한국, 해당, 등재, 취재, 뒤, 때, 전입, 그, 인용, 조사, 준비단, 최성해, 기소, 연구, 자유, 초록, 결과, 부산대, 연구실, 전형, 채널, 낙제, 대학, 수사, 추천, pc, 단국, 서울, 소개서, 자료, 전화, 제목, 관계자, 문, 발견, 이유, 대학원, 발표, 사진, 인터뷰, 지급, 통화, 특혜, 한국일보, 성, 시험, 아파트, 언급, 이후, 지도, 프로그램, 경우, 국민, 등장, 버닝썬, 부인, 상장, 선발, 자기, 프레임, 가능성, 설명, 시작, 이런, 지적, 학회, 건, 날, 발급, 법무부, 부분, 우리, 의대, 이날, 일보, 입장, 고려대, 관계, 근거, 기간, 기자, 다시, 매체, 모두, 민정, 사람, PD수첩, 심의 이름, 재단, 체험, 취소, 한국, 환경, tv, 경찰, 규정, 기재, 방송, 번호, 서류, 씨, 연결, 의학, 이전, 작성, 점, 정황, 중, 가족, 강조, 결정, 기록, 기회, 나, 대한민국, 동아리, 사건, 아들, 연구소, 위, 의심, 일련 등(빈도순, 2회 이상 출현 어휘)

ㄴ. 후서: 언론, 말, 사람, 때, 진중권, 서민, 기자, 강양구, 그것, 비판, 뉴스, 문제, 우리, 일, 조국, 생각, 정치, 그, 글, 전, 대중, 얘기, 진보, 권력, 미디어, 사실, 자기, 지금, 황우석, 교수, 꿈수, 이, 씨, 그때, 정부, 보수, 정권, 칼럼, 빠(황빠, 노빠, 노빠), 사태, 상황, 논객, 사회, 이것, 팩트, 게임, 김 대통령, 난자, 대한, 보도, 삼성, 장관, 아들, 박근혜, 사건, 역할, 이야기, 정도, 한겨레, 검찰, 기사, 돈, 문, 현실, 나경원, 노무현, 누구, 당시, 모델, 선생, 소리, 왜곡, 자신, 지식인, 관련, 광고, 민중, 복제, 시대, 운동, 자체, 거기, 레거시, 경우, 과거, 담론, 대안, 뒤, 마녀, 무엇, 방송, 신뢰, 앵커, 언론인, 저널리스트, 저널리즘, 진리, 건강, 딸, 미국, 사안, 여성, 옹호, 이해, 인터뷰, 윤지오, 진실, 책, 타파, 판단, 필요, 한국, 현상, 협찬, 거짓, 경제, 고소, 공장, 과학, 구독, 기성, 나라, 다음, 독립, 맘모스, 매체, 문패, 민주, 박사, 방향, 세포, 순간, 스트레이트, 신문, 영향력, 웃음, 의식, 인기, 입장, 문재인, 조선일보, 주장, 줄기, 진짜, 총장, 탄압, 공론, 관계, 균형, 기준, 끝, 날, 내용, 논리, 능력, 대표, 독자, 동안, 마음, 말씀,

문건 등(빈도순, 2회 이상 출현 어휘)

(5ㄱ)에서 명사류는 조국 사건과 관련된 인물, 쟁점이 되는 사건 관련 어휘 등이 고빈도로 출현하고 있다. ‘대학, 연구, 검찰’과 관련된 어휘들이 고빈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도, 기사, 언론’이 최상위 빈도로 나타나 이 텍스트가 조국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5ㄴ)에서는 (5ㄱ)에 비해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고, 언론 문제를 일반화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5ㄴ)에서 특징적인 것은 ‘정권, 권력’이 고빈도 어휘로 나타나는데 이는 (5ㄱ)과 비교하여 대조적인 부분이다. 동일한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5ㄱ)에서는 ‘정권, 권력’이라는 어휘가 출현하지 않지만 (5ㄴ)에서는 고빈도 어휘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5ㄱ)에서는 현재 드러나는 문제의 주체를 ‘언론’으로 보고 있지만 (5ㄴ)에서는 현재의 문제를 ‘권력’의 문제와 연관지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언론사의 빈도 순위도 흥미롭다. (5ㄱ)의 상위 빈도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SBS, 한국일보’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 (5ㄴ)에서는 ‘한겨레, 스트레이트(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조선일보’ 순으로 나타난다. 실제 텍스트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사나 프로그램의 이름이 많이 언급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빈도순을 통해 (5ㄱ)에서는 주로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언론사를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5ㄴ)에서는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 그리고 정권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언론사 모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명사류 어휘의 출현 양상을 통해 (5ㄱ)은 백서의 장르적 성격에 맞게 조국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 (5ㄴ)은 언론의 문제를 일반화하여 폭넓게 다루면서 “팩트와 논

리'로 승부하겠다"는 저자들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동사류의 어휘 빈도

ㄱ. 백서: 받, 얹(보조), 있(보조), 없, 하, 아니, 대하, 되, 밝히, 갈, 하(보조), 나오, 보, 보(보조), 주(보조), 알리, 통하, 따르, 만들, 모르, 쓰, 위하, 전하, 그렇, 찍, 덧붙이, 보이, 크, 못하(보조), 어떻, 올리, 어렵, 되(보조), 알, 주, 들어가, 오(보조), 이루, 다루, 다르, 드러나, 들, 묻, 이어지, 찍히, 나서, 말하, 수많, 오, 나가(보조), 넘, 맞, 바꾸, 보내, 싶(보조), 잇, 키우, 가지, 갖, 남, 높, 늘, 많, 맞추, 불가능, 언, 옮기, 있, 갈, 거치, 나가, 내, 내보내, 놓, 다니, 떠오르, 만나, 벌이, 뽑, 사, 살, 열리, 가, 내, 당연, 덮, 똑같, 몰아가, 번지, 벌어지, 불과, 빼돌리, 삼, 새롭, 쏟아지, 오르, 이렇, 적히, 가, 나, 내리, 넣, 놓치, 늘어나, 돕, 두, 두, 따지, 떨어지, 명확, 모으, 무관, 문제없, 바로잡, 부르, 부풀리, 불리, 빼앗, 사라지, 상세, 서, 쉽, 신, 얹, 여기, 외, 의하, 이러, 잡, 정당, 커지, 풀, 가능, 가하, 강력, 거세, 관하, 궁금, 기울, 꼽히, 끝나, 나아가, 남기, 낮, 넘어가, 넘어서, 놓, 느끼, 늦, 달, 닭, 당하, 돌아가, 둘러싸, 든, 들이대, 만하, 말, 말(보조), 말, 매, 물, 미숙, 민감, 바뀌, 빼기, 부끄럽, 붙이, 빠지, 살리, 생기, 숨기, 심, 심각, 쏟, 씌우, 앞두, 앞서, 엇갈리, 이, 일하, 적절, 좋, 중요, 지키, 짧, 찻, 타, 터지, 틀리, 퍼붓, 퍼지, 펼치, 풍기, 하찮, 확실, 황당, 휩싸이 (빈도순, 2회 이상 출현 어휘)

ㄴ. 흑서: 하, 얹(보조), 그렇, 있(보조), 쓰, 아니, 만들, 갈, 없, 보(보조), 보, 주(보조), 많, 어떻, 대하, 되(보조), 가지, 나오, 버리(보조), 좋, 지(보조), 들, 싶(보조), 이렇, 받, 가, 알, 누르, 맞, 주, 모르, 못하, 욕하, 통하, 가(보조), 들어가, 똑같, 생기, 오(보조), 나, 다루, 말(보조), 못하, 무섭, 보이, 부르, 의하, 지키, 크, 끊, 넘어가, 다르, 당하, 따르, 망가지, 믿, 벌어지, 쉽, 위하, 그러, 나가(보조), 내, 내(보조), 다니, 듣, 바뀌, 보내, 뽑, 싸우, 원하, 일어나, 겪, 나누, 날리, 넘, 놀라, 높, 놓, 놓(보조), 느끼, 돌아가, 떨어지, 먹히, 받아들이, 오, 옮, 잘리, 잡, 갖추, 달리, 대, 더하, 들어서, 따지, 만나, 먹, 무너지, 밝히, 빠져나가, 살, 심하, 안타깝, 어

렵, 업चना, 울리, 이기, 읽, 재미있, 키우, 헛갈리, 가득하, 갇히, 강하, 거르, 계시, 그리, 그만두, 기억나, 끝, 끝나, 나가, 남, 내리, 내보내, 높이, 두드리, 드러나, 들어오, 말, 말씀드리, 말하, 맞추, 말, 모이, 묻, 바라보, 벌이, 비하, 빠지, 뻥하, 빼, 사, 사라지, 신나, 아무렇, 알리, 앞장서, 애쓰, 얻, 옆, 열, 오죽하, 올바르, 이루, 인하, 잃, 작살나, 잘하, 저렇, 좋아하, 지나, 쪼, 처하, 털리, 편들(빈도순, 2회 이상 출현 어휘)

동사류의 고빈도 어휘들을 통해 텍스트가 함의하는 좀 더 다양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두 텍스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고빈도 어휘는 보조동사 ‘없다’이다. 균형 코퍼스를 대상으로 빈도를 산출한 김홍규·강범모(1997:78)의 빈도 정보에서도¹¹⁾ ‘없다(보조동사)’는 전체 순위 7위로 고빈도 어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6ㄱ, ㄴ)에서는 모두 2위로 나타나 여타의 텍스트에 비해 이 형태가 고빈도로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6ㄱ)에서는 ‘없다’가 4위로 나타나 균형 코퍼스에서 6위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상위에 위치해 있다. 즉 두 텍스트에서는 서술된 명제를 부정하는 표현 등이 빈번히 쓰이고 있고 특히 (6ㄱ)에서는 특정 대상이나 존재를 부정하는 표현이 빈번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두 텍스트가 논쟁적 상황, 갈등의 상황에서 나온 텍스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홍규·강범모(1997)의 용언 고빈도 순위와 비교해서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6ㄱ)에서는 ‘받다, 밝히다, 알리다, 전하다’가 고빈도로 나와서 이 텍스트가 사실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백서 장르라는 사

11) 김홍규·강범모(1997)은 21세기 세종계획의 일환으로 구축된 균형 코퍼스를 대상으로 품사별 형태소 사용 빈도를 정리하고 있는 책이다. 오래된 자료이고 문어 중심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장르가 포함되도록 설계된 코퍼스에서의 빈도 정보에기에 일반적인 빈도 양상을 살피기에 적절하다.

실을 확인할 수 있다. (6ㄴ)에서 고빈도 어휘로 특징적인 것은 ‘쓰다, 만
들다, 많다, 욱하다’ 등이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쓰다’인데 김홍
규·강범모(1997)에 나타난 순위에서는 35위인데 반해 (6ㄴ)에서는 5
위로 매우 고빈도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이 텍스트에서는 저자들이 ‘쓰
는’ 행위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사를 쓰는 기자, 칼럼을
쓰는 지식인 등에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들다’가 후서에서 고빈도로 사용되는 것 역시 특징적이다. ‘만들다’는
균형 코퍼스에서 42위 정도의 빈도를 보이나 후서에서는 7위로 매우 고
빈도 어휘로 쓰이고 있다. 후서에서는 언론이나 정권, 그리고 특정한 집
단이 이슈를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면서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주를 이룬다. 즉 이러한 빈도 정보를 통해 언론에서 다루는 이
슈들이 조작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6ㄴ)의 저자들의 중심 생
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두 텍스트에 나타나는 용언류의 어휘 빈도의 또 다른 특징은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나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용언류가 많다는 것이다.

(7) 백서의 형용사류와 판단 용언류(빈도순)

- ㄱ. 크다, 많다, 똑같다, 새롭다, 쉽다, 짧다.
- ㄴ. 같다, 싫다(보조용언), 불가능하다, 당연하다, 불과하다, 명확하다,
무관하다, 문제없다, 바로잡다, 부풀리다, 가능하다, 강력하다, 궁급
하다, 느끼다, 미숙하다, 민감하다, 부끄럽다, 심각하다, 엇갈리다,
좋다, 중요하다, 틀리다, 풍기다, 하찮다, 확실하다, 황당하다

(8) 후서의 형용사류와 판단 용언류(빈도순)

- ㄱ. 많다, 똑같다, 크다,
- ㄴ. 같다, 좋다, 싫다(보조용언), 모르다, 못하다, 무섭다, 망가지다, 민
다, 쉽다, 원하다, 놀라다, 느끼다, 옳다, 무너지다, 심하다, 안타깝다,

어렵다, 엄청나다, 재미있다, 헛갈리다, 가득하다, 강하다, 뻘하다, 신나다, 애쓰다, 오죽하다, 올바르다, 작살나다, 잘하다, 좋아하다

백서의 용언 중 특히 (7ㄴ)에 나타나는 용언들의 양상을 살펴보면 조국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내용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불가능하다, 명확하다, 무관하다, 문제없다, 부풀리다’ 등의 용언을 통해 언론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주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ㄴ)의 동사 어휘를 살펴보면 비격식적이거나 속어적 성격을 갖는 어휘들이 눈에 띈다. ‘엄청나다, 뻘하다, 작살나다’ 등의 어휘가 그 예에 속한다. 또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고빈도로 나오는 것 역시 특징적이다. 이러한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두 텍스트에서 형용사로 분류된 출현 용언을 살펴보자.

(9) 출현 형용사

- ㄱ. 백서: 없, 같, 그렇, 크, 어떻, 어렵, 다르, 수많, 높, 많, 똑같, 새롭, 이렇, 문제없, 쉽, 거세, 낮, 늦, 부끄럽, 좋, 짧, 하찮, 강하, 게으르, 괜찮, 급하, 길, 깊, 꼼꼼하, 난데없, 넓, 다름없, 드물, 무겁, 밤늦, 별다르, 순하, 싫, 작, 잣, 조용하, 줄기차, 차, 택하, 편하
- ㄴ. 흑서: 그렇, 같, 없, 많, 어떻, 좋, 이렇, 똑같, 무섭, 크, 다르, 쉽, 높, 옳, 심하, 안타깝, 어렵, 엄청나, 재미있, 가득하, 강하, 뻘하, 아무렇, 오죽하, 올바르, 저렇, 김붙, 곱, 괜찮, 귀하, 그르, 나쁘, 낮, 너무하, 놀랍, 드물, 번거롭, 새롭, 섬뜩하, 손쉽, 수많, 슬프, 아쉽, 아프, 약하, 어처구니없, 열띠, 작, 적, 줄기차, 하얗, 혼하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자료의 분량이 백서가 약 두 배 가량 많고, 전체 타입이나 토큰의 수도 백서가 많으나, 형용사의 경우 백서에 비해 흑서에서 많은 유형의 형용사가 나타난다.

전체 용언류의 타입이 백서가 391개, 흑서가 350개로 백서에서 용언류가 많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형용사는 흑서에서 많이 나타난다. 특히 흑서에서는 주관적이고 부정적 표현의 형용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¹²⁾ 이러한 특징이 흑서가 표방한 ‘팩트와 논리’와 배치되는 면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백서와 흑서의 계량적 양상을 통해 백서와 흑서의 장르적 성격과 저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문제, 저자의 의도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다음 절에서는 텍스트의 내용 구성과 표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면서 텍스트에 함의된 이데올로기에 좀 더 접근해 보기로 한다.

3. 타동성 분석과 어휘 사용 양상의 특징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의 3부 언란은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1장과 2장 그리고 에필로그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선택한 부분은 프롤로그와 1장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조국 가족 관련 언론 보도이다. 프롤로그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정리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저자들의 관점과 평가가 드러나 있어서 이후 부분에서 다룰 내용에 대한 관점과 전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프롤로그 부분에 대해 체계 기능 문법의 타동성 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텍스트의 주제인 ‘언론’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주어와 서술어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12) 물론 흑서의 양상 중 ‘재미있다, 올바르다, 새롭다’ 등과 같이 긍정적 어휘도 나타나지만 사실 이들 어휘가 상황에 따라서는 조롱이나 반어적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10) ㄱ.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다.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순위는 42위다.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 ㄴ.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해마다 추락하고 있다. 부끄러운 수준이다. 22%에 불과해 최하위다. 계속 추락하고 있다.
- ㄷ. 한국 언론: 재난이다. 비난까지 받았다. 팩트 체크를 잘 하지 않는다. 팩트 부풀리기를 한다. 복불 기사를 작성한다. 빈축을 사기도 한다. 소설 냄새가 난다. ‘윤리’나 ‘인권’이라는 단어가 있었던가. 나팔수 역할, 선전선동지로 전락. 반성하지 않는다. 여전히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다.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언론자유’라는 말 뒤에 숨을 뿐이다. 저널리즘에 충실했는가? 언론 망국론
- ㄹ. 보도: 복불 보도, 좀비 보도, 한풀이 보도, 기억에서조차 가물가물한 보도들

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에 나타난 언론에 대한 관점은 매우 부정적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을 드러내는 데 매우 직설적 어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서술어 부분을 보면 ‘추락, 부끄러움, 비난, 빈축, 소설, 나팔수, 좀비, 한풀이’ 등 자극적인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어휘 사용의 특징은 이 텍스트가 객관적이고 논증적인 텍스트라기보다 감정에 치우친 면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어휘 사용에 더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우선 (10ㄱ) ‘언론자유지수’를 기술한 부분에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 1위다’를 먼저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순위는 42위’라고 쓰고 있다. 여기에서 독자들이 드는 의문은 언론자유 순위 42위가 그렇게 높은 순위일까 하는 의문이다. ‘아시아 국가 중 1위다’를 텍스트에서 먼저 드러냄으로써 언론자유 순위에 비해 신뢰도가 낮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독자들의 눈을 속이는 방식으로 정보를 구성한 면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한다.¹³⁾

(10-)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 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리포트 2019’가 제시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언론 신뢰도는 22%에 불과해 조사 대상 38개국 중 최하위라고 쓰고 있다. 언론자유 순위 42위는 매우 높은 수준이고, 38개국 중 최하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독자들의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 우선 언론 신뢰도 연구의 대상이 된 38개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최하위가 몇 위인지, 즉 38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38위라면 왜 38위라는 숫자 대신 최하위라는 표현을 써서 독자들의 판단을 모호하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즉 이 텍스트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한 계량적 데이터도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서 쓰거나, 사실 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되지 않아서, 객관적 근거로서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13) 언론자유지수에 대한 이러한 서술에 대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지금 상황은 한편으로 시장의 요구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선동 요구가 있습니다. 이 두 요구가 만나서 비판적 독자들을 콘텐츠 소비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참·거짓’이 아닙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처음 접하는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언론 탄압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 자체가 없어요. 기존의 잣대는 권력에 의한 탄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걸으려는 언론자유지수는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실제로 경험하는 상황은 매우 억압적이거든요. 유시민 씨 한 마디로 KBS 범조팀이 날아가는 것을 보세요. 요즘 기자들이 대놓고 말을 못하니 저에게 “잘한다”고 격려문자나 보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페이스북 ‘좋아요’도 무서워서 못 누르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유형의 억압은 기존의 기준으로는 아예 파악 또는 평가가 안 되는 거죠.(95~96쪽)”라고 쓰고 있다. 가장 객관적으로 보이는 ‘언론자유지수’와 같은 자료도 이 같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백서의 저자들이 ‘아시아 1위 - 언론자유순위 42’와 같은 정보 제공 방식으로 독자들의 눈을 속이려는 시도가 적절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ㄷ)의 내용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라파엘 라시드의 <한국 언론을 믿을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 글에 나타난 내용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며 주장에 대한 이유를 기술하기도 한다. 프롤로그적 성격의 글이어서 그럴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생각을 이유로 기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10ㄱ~ㄷ)의 내용은 대체로 외국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론을 비판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전략은 외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데이터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장점이 많은 전략이겠으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정보 구성 방식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0ㄷ)의 어휘들은 매우 자극적인 표현들이다. ‘북북보도’는 팩트를 기술한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좀비, 한풀이’ 등의 어휘는 매우 자극적이고 격식적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언론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표현의 적절성이 주장될 수도 있으나,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백서’라는 타이틀을 달고 공식성을 주장하는 텍스트에서 이것이 적절했는지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본격적인 백서 내용에 해당하는 ‘1장 조국 가족 관련 언론 보도’는 언론 보도를 하위 분야로 나누고 하위 분야별 보도 내용을 요약하고, 날짜별 언론사 기사의 타이틀을 제시하고, 설명 반박을 제시한 다음, 언론사 기사의 타이틀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1장의 첫 부분인 ‘위장 매매 의혹 보도’ 부분의 텍스트 도식 구조(schematic structure)는 다음과 같다.¹⁴⁾

14) 텍스트의 구성을 정리하는 방식은 체계 기능 언어학에서 장르의 도식 구조 분석 방법을 따랐다. 자세한 내용은 Eggins(2004)를 참고할 수 있다.

(11) 주제 도입(최초 기사 내용) - 언론사별 기사 제목 제시(1) - 언론사별 차이 서술(1) - 소주제 도입(2) - 언론사 기사 제목 제시(2) - 소주제(2)에 대한 타 언론사 보도 - 언론사 기사 제목 제시(3) - 기사 당사자의 입장문 소개(반박) - 저자들의 평가(비판) - 언론사별 기사 제목 제시(4) - 특정 언론사 기사 내용 정리 - 언론사 기사 제목 제시 - 저자 평가 - 언론사별 기사 제목

위의 도식구조가 기본 구조이기는 하지만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기사 내용을 인용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반박하는 내용으로 하위 절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입시비리 의혹 보도’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도식 구조를 보이고 있다.

(12) 주제 도입(최초 기사 내용) - 기사 제목 제시(1) - 기사 내용 설명(1) - 기사 내용 인용(1) - 기사 내용에 대한 설명 및 판단(1) - 다른 기사 도입(2) - 기사 내용 인용(2) - 설명(2) - 문제 제기(2) - 기사 인용(2) - 비판 - 소주제 도입(3) - 기사 인용(3) - 설명 및 비판(3) - 언론사별 기사 제목 제시 - 소주제 도입(4) - 기사 인용(4) - 설명 및 비판 - 기사인용(4) - 설명 및 비판 - 소주제 도입(5) - 언론사별 기사 제목 제시 - 설명 - 언론사별 기사 제목 제시 - 설명 - 언론사별 기사 제목 제시 - 설명 - 언론사별 기사 제목 제시 - 설명 - 언론사별 기사 제목 제시....

백서의 도식 구조는 크게 시간순을 따르면서 소주제별 언론기사의 보도 내용과 방향을 설명하고 기사 제목을 근거로 제시하는 구조이다. 중간에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과 비판이 제공되기도 하고, 특정 기사 다음에 기사의 주체가 된 사람들의 해명 등이 제시되기도 한다.

백서의 이러한 도식 구조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을 제

기할 때 언론 보도 대상의 입장에서 설명이나 비판을 제기하게 되면 장르적 특성이 무색하게 편향성을 띠게 되고 텍스트가 논리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동양대 표창장 수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면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정 언론에서 다른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¹⁵⁾ 우선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상을 준 자료가 없어 확인이 어렵다.”는 보도에 대해 “조 씨에게 총장상을 수여한 기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2014년 이전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12년 당시의 표창 사실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뜻인 것으로 밝혀졌다.(225쪽)”고 쓰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이러한 해명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또한 YTN에서 보도한 동양대 A 교수와의 통화 내용과 관련된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 보도가 YTN만 보도되어 파급력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인터뷰 내용은 표창장을 동료 교수가 기특해서 먼저 제안했다는 것이다. 공정과 정의의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동료 교수가 기특해서”라는 이유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즉 백서의 도식 구조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하는 구조로 적절한 반면, 정보 제공 중간에 이루어지는 비판이나 설명은 특정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는 관점과 시각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문제가 드러난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2020)>의 2장 ‘미디어의 몰락, 지식인의 죽음’은 언론의 편향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서민 씨가 진행을 하고 진중권, 강양구 씨가 대담을 진행한 내용이다. 한 출연자의 발언

15)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문제제기가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의 호흡이 길고 한 발화에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하는 발화 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언론사나 프로그램, 특정 인물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나타난 ‘언론’에 대한 인식의 가장 큰 차이는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에서 언론은 잘못을 저지르는 자발적 주체로 인식되고 서술되는 반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의 언론은 주체로 서술되기도 하지만 객체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다. 즉 누군가에 의해 세팅되고 좌지우지되는 것이 현재의 언론의 모습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에 대한 분석과 같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대해 체계 기능 문법의 타동성 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텍스트의 주제인 ‘언론’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주어와 서술어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13) ㄱ. 언론 기사: 처음부터 용의주도한 계획에 의해 인위적 의도적으로 제작됐다는 것
- ㄴ. 언론: 예전보다 더 망가졌어요. 공론장에서 사회의 어떤 영역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정체성이 사라졌어요. 권력을 유지하거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것, 일종의 프로파간다의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권력에 종속된, 권력과 같이 가는, 권력을 만드는
- ㄷ. 언론인들: 권력 종속에 대한 성찰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 ㄹ. 우리나라 언론: 논거를 제시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언론은 누군가가 권력을 위해 계획적으로

세팅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한편 권력 유지나 찬탈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음에도 언론인들은 권력 종속에 대한 성찰이나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13ㄷ)과 같이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를 지적한 부분은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의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또다른 특징적 서술은 현재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을 나누고 예전과 현재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예전에 보수 언론이 행했던 행태보다 더한 행태를 진보 언론이 자행하고 있음을 구체적 인물과 프로그램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 (14) ㄱ. 조선일보: 편파, 왜곡을 마음 놓고 자행하는 집단
 ㄴ. MBC, KBS: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 편을 드는 수호방송
 ㄷ. 진보언론: 거대한 허구를 날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가담
 ㄹ. <저널리즘토크쇼>: 언론 왜곡 사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안을 자기들이 믿고 싶은 진실로 선동.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윤지오 같은 허술한 사기꾼에게 넘어간 언론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
 ㄺ. <아주경제>: 조국일가가 옳다고 우겼다. 사실관계를 왜곡한다.

(14)의 내용들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저자들의 인식과 주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표현이다. 이러한 구체적 언급을 통해 언론사들을 분류하고 각 언론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편파, 왜곡, 거대한 허구, 날조, 가담, 선동, 우기다, 왜곡하다’ 등과 같은 어휘는 매우 부정적 뉘앙스를 가진 강한 어조의 어휘들이다. 이러한 어휘 사용의 특징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언론사에 그치지 않고

특정 개인에 대한 서술에서도 드러난다.

- (15) ㄱ. 손석희: 레거시 미디어에서 가장 성공했고 가장 상징적인 인물. 언론의 정체성을 성찰하면서, 언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하면서 팩트만을 좇음. 지금은 안 먹힌다.
- ㄴ. 유시민: <경향신문> 유희곤 기사를 마녀사냥했고, KBS 법조팀을 날려버렸잖아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 ㄷ. 주진우: 솔직히 기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사람. 기사를 정치적 공격 무기로 활용해 정적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냥개 스타일.
- ㄹ. 김어준: 대표적 황빠,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던 황빠가 김어준씨였어요.

(15ㄱ)의 ‘손석희’ 씨는 이 책에서 언급된 개인이나 기관 중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서술된 인물이다. 손석희 씨가 레거시 미디어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팩트를 좇는 저널리즘을 구사하고 있다고 서술하면서 진보를 대표하는 나꼼수와 대비하고 있다. 이 텍스트에서 나꼼수는 “대중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야 대중들이 지지해주고, 환호해주고, 그래서 영향력이 생기는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공적으로 보여주었고,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이를 성공의 모델로 잡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¹⁶⁾ 이를 통해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도 <나꼼수>화가 진행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¹⁷⁾ (15ㄱ)

16)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진중권 씨는 대답에서 “1930년대 서구의 당파적 저널리즘으로 회귀(고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정권을 뺏기지 말아야겠다)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황우석 사태 때 이미 “진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나꼼수 철학이 만들어진 것이고, “선악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광노현 사건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17) <나꼼수>에 대한 시각차는 두 텍스트가 얼마나 상반된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에서는 검찰 개혁의 성과를 낸 주체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

과 대비하여 (15ㄴ~ㄷ)에서 언급된 개인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인물들이다. 특정 인물에 대한 긍정 평가 부정 평가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평가에 사용된 언어적 표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5ㄴ~ㄷ)에서 개인에 대한 평가로 사용된 어휘는 매우 직설적이고 부정적이며, 독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높은 수위의 표현들이다.

대담에서 진중권 씨는 기성언론에 대해 쓰레기라고 하는 건 ‘경멸어(pejorative)’이지 사실 판단이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경멸어의 표현이 사실 판단으로 둔갑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즉 기성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경멸어를 통해 대중을 자극하고 선동한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이 텍스트에서 기관과 인물에 대한 평가에 사용한 어휘가 비판적 어휘인지 경멸어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 텍스트에서는 “애먼 언론들을 쓰레기를 만들어 놓고, 감냥도 안되는 이들이 ‘참’ 언론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라는 표현을 통해 비판 대상에 대해 ‘쓰레기’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 표현의 수위와 효과는 ‘경멸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특히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Xㄷ’이라는 표현은 상대와 우리를 단절하는 대표적 단어라 할 수 있다. 이 역시 ‘경멸어’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텍스트에 이러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 텍스트를 쓴 저자 역시 자신들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 대통령, 오랫동안 검찰개혁에 천착해온 교수 출신의 법무부 장관, 개혁적 삶과 정치로 일관해온 여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존재, <나꼼수> 이후 만개한 1인 미디어의 힘 등이 모여 모자이크처럼 검찰개혁 입법을 이뤄냈다고 봐야 할 것이다.(344~345쪽)”라고 쓰고 있다. 반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는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나꼼수의 성공사례를 따라하려는 지식인들의 행보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 분열되고 혼탁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IV. 결론 : 텍스트에 나타난 분열의 속성

지금까지 두 텍스트의 언어적 특징을 계량적으로 질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특성과 텍스트의 속성을 기반으로 이 텍스트에 나타난 분열적 양상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텍스트를 생산하는 생산자 즉 필자 구성에서 분열적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2020)>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2020)>의 저자들은 각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애초에 자신과 다른 관점이나 생각을 텍스트에 담을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조국 사태로 인해 극심한 분열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도 분열을 봉합하고 발전적인 화합을 모색하는 텍스트를 만들겠다는 생산적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각 저서의 저자들은 권력을 가진 집단과 권력에 대항하는 집단으로의 분열적 양상을 장르적 특성 및 텍스트의 내용 등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분열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분열된 사회 속에서 특정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는 지식인들이 모여 텍스트를 만들고 이러한 텍스트가 베스트셀러 1~2위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진영 논리를 관철시키겠다는 저자들의 의도가 많은 독자들에게 전달되어 우리 사회의 분열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두 텍스트의 대상 독자에 대한 문제이다. 이 두 책을 구입하고 읽은 사람들이 누구일까? 조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2020)>을 구입했을까? 만약 구입했다면 그 책을 읽고 자신의 관점과 생각이 바뀌었을까?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2020)>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질문이 가능하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검찰 개

혁과 촛불시민>은 시민의 요구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저자들의 설명처럼 이 텍스트와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주 독자일 가능성이 높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도 결국 이 상황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결국 텍스트별 독자 역시 분열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논리적 설득의 측면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독자들이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텍스트의 내용은 논리적인 근거나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여 반박하였다기보다 상대를 비난하는 내용을 구성하고 감정적이고 다소 과격한 어휘 표현으로 감성에 호소하는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즉 텍스트는 객관성과 논리성을 표방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텍스트의 특성은 객관성과 논리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텍스트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자 했거나 미처 포착하지 못한 생각을 알고자 했던 독자들은 이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이 책의 독자들 역시 자신의 진영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듣고자 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다른 생각을 가진 독자들이 이 텍스트들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텍스트가 그 독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텍스트들이 사회의 분열을 심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텍스트에 쓰인 감정적 어휘들, 부정적 뉘앙스의 언어 표현들, 경멸어의 과도한 사용 등은 분열의 언어, 분노의 언어 표현으로 독자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 표현들로 독자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자신과 다른 관점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텍스트에서 공통으로 제기한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들이 있다. 복불기사를 쓰고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두 텍스트의 해결방향은 매우 다르다.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에서는 언론의 정론 기능 회복을 위해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의 확대와 오보 방지법 제정 등을 들고 있어서 주로 법규와 제도로 언론을 규제하고자 한다. 반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는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한 양질의 칼럼을 쓰는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이러한 지식인들이 균형 잡힌 시각의 양질의 칼럼을 생산하여 특정 사안을 어떻게 봐야 할지 시각을 조직하고, 기자는 ‘보는 사람’의 역할을 통해 팩트에 기반한 기사를 생산해 내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은 우리 사회에서 모두 공론화하여 검토해 보아야 할 해결방안들이다. 즉 두 텍스트의 저자들이 진영 논리를 버리고 문제에 직면하여 건강한 토론을 거친다면 우리 사회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두 텍스트에서는 대중에 대한 인식 역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의 에필로그 부분에서 “정부, 여당,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하나로 모아 슬기롭게 언론개혁을 이끌어야 한다. 깨어 있는 시민들은 언론개혁의 마지막 순간에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힘을 보탬 준비가 되어 있다.(p.345)”로 시민 즉 대중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언뜻 발전적인 방향인 듯 보이나, 서술의 주체를 살펴보면 이 역시 분열을 조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 개혁의 주체에 “정부, 여당, 시민사회”만이 포함되고, 다음 문장에서 “깨어 있는 시민들은”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시민” 역시 “깨어 있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으로의 양분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제시된 대중은 때로는 싸워

할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대기업 광고주가 언론에 압력을 가하듯 대중들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즉 대중이 기자가 되고, 방송사가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대중은 파시스트적 추적군중이 될 수도 있고, 자율주의적 다중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파시스트 추적군중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렸다.(95쪽)”라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분열된 대중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파시스트적 추적군중’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대중을 비판하고 있다. 이 역시 대중이나 시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텍스트의 다양한 속성들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사회에 각 진영의 논리만을 강조하여 전달함으로써 분열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화합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지성을 가진 수준 높은 시민들이 있어야 하고 건강한 비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텍스트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갈등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에 분열을 조장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일환, 『빈도 효과: 코퍼스를 활용한 국어 문법의 기술』,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2020.
- 김진우, 『언어와 담화: 담화분석론의 현황과 전망』, 한국문화사, 2017.
- 김홍규·강범모, 『한국어 형태소 및 어휘 사용 빈도의 분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7.
- 박지영, 「독도 영유권 주장의 비판적 담화 분석: 한일 외교 당국 웹사이트에 소개된 근거자료를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제24권 3호, 담화인지언어학회, 2017, pp.25~55.
- 서경희·김규현, 「미디어 담화의 비판적 담화분석: 동남아 이주민 기사를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제26권 3호, 담화인지언어학회, 2019, pp.101~128.
- 석승혜·장안식, 「극우주의의 프레임과 감정 정치: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을 통해 일베 커뮤니티 분석」, 『한국사회』 제18권 1호,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7, pp.3~42.
- 심준섭, 「언어네트워크분석 기법을 활용한 갈등 프레임의 분석」, 『한국행정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행정연구원, 2011, pp.183~212.
- 이관규, 「체계기능언어학의 특성과 텍스트 평가」, 『문법 교육』 34, 한국문법교육학회, 2018, pp.195~222.
- 이관규 외, 『체계기능언어학 개관』,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 이승연, 「사회과 텍스트 분석을 위한 비판적 담화 분석 방법의 이용: 체계기능언어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48권 4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6, pp.173~224.
- 최영재, 「분열 정치와 분열 언론 그리고 분열 여론의 악순환 이론」,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한국언론학회 2011, pp.137~152.
- 최윤선, 『비판적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2014.
- Eggs, An introductions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2nd ed.), Continuum, 2004. (김서형 외 번역, 『체계 기능 언어학의 이해』, 역락, 2021.)
- Fairclough, Norman, Analysing Discourse, Taylor & Francis Group, 2003.(김지홍 역, 『담화 분석 방법』, 도서출판 경진, 2012.)
- Fairclough, Norma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s a method in social scientific research」,

Method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eds. by R. Wodak and M. Meyer, 121-138. California : Sage Publications, 2001.

Halliday,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2nd ed.), Edward Arnold, 1994.

Martin, 「Language, Register and Genre」, In F. Christie (ed.) Children Writing : A reader, Deakin University Press, 1984.

Ruth Wodak & Michael Meyer eds., Methods of Critical Discourse Studies 3rd, Sage Publications, 2016.(김현강 외 옮김, 『비판적 담화 연구의 방법들』, 경진출판, 2021.)

〈분석 자료〉

강양구 외,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천년의 상상, 2020.

조국백서추진위원회,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오마이북, 2020.

Abstract

Divided Society in Texts

- Focusing on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 Analysis -

Yoo, Hye-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pecify divisive aspects revealed in two texts, <prosecutorial reform and candlelight citizens (2020)> called "ChoKuk white paper" and <country that has never experienced (2020)> called "ChoKuk black paper", through systematic functional linguistic analysis. To this end, genre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and division aspects shown in two texts were analyzed by looking a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roperties. Especially, I analyzed parts that dealt with the 'press' in priority.

Results of quantitative analysis, transitivity analysis, and lexical analysis confirmed the nature of the White Paper, a genre characteristic of <prosecutorial reform and candlelight citizens (2020)>, and the authors' intention to base facts and logic in <country that has never experienced (2020)>. In addition, <prosecutorial reform and candlelight citizens (2020)> saw the cause of press problem as the media itself problem, while <country that has never experienced (2020)> revealed the perception that the media could be manipulated and created by the power. Based on this analysis, I presented divisive aspects of the authors, readers, and contentual aspects presented in the two texts, arguing that frequent use of emotional vocabulary and excessive use of pejorative words in both texts are accelerating our social division.

Key Words : pejorative words, division, ChoKuk white paper, ChoKuk black paper, systematic functional linguistics, transitivity analysis

유혜원

소속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교수

전자우편: transla@dankook.ac.kr

이 논문은 2021년 8월 16일 투고되어
2021년 9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9월 25일 게재 확정됨.